

필요광장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 디자인비엔날레가 던져 준 의미

북한 점은 지역의 메가 이벤트를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의미를 던져 준다.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이라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주제는 결국 인간과 디자인이라는 핵심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네 개의 테마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난다. 첫 번째 주제는 동서 가치융합의 신명을 키워드로 하는 '광주 지역 브랜드 업그레이드'(Gwang Ju Branding)였다. 두 번째는 '유쾌한 디자인 나눔'을 키워드로 세미나·담론·발표·파티가 함께 하는, 전문가만이 아닌 대중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사와 이해의 대전환을 꾀하는 '디자인콘서트'와 '광주문화디자인샵'. 세 번째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을 소개하고 창의 혁신 디자인 사례가 함께 구성되는 '디자인 R&D'였다. 네 번째는 '한중일 문화 가치'를 키워드로 동아시아의 디자인 그루가 큐레이터로 참여하는 '아시아 디자인 허브'(Asia Design Hub).

여기에서 우리는 '광주-아시아-세계'를 잇는 하나의 고리를 추종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의 고민과 문제를 담은 문화예술의 발전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소통되며 수신되는 사례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흔히 사용하는 글로벌(세대화)의 하나의 전범을 장안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광주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고민·문제·지향성을 함께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시도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행위, 즉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Think Globally, Act Locally) 것이 광주가 앞으로 견지해야 할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지역의 산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지역의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는 높이 평가된다. 문화예술이 공격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를 흥미롭게 제기한 점도 의미가 크다. 전시에서 보여 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중 하나인 '슬리퍼'는 사실 가정에서, 심지어 요새는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끌고' 다니는 하찮은 신발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편의성은 묻혀 왔던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 디자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기여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경험과 시도를 내년의 비엔날레나 며칠 전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산 타령, 인력 타령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한 면도 적지 않다. 그저 그러한 기획, 유명 인사들의 '떡튀'에 그치고 마는 전시에 대해서는 이제 식상해 있다. 밀라노를 세계적 도시로 키운 열정·의지·지혜가 광주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끌어내고 결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는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리더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변화와 도약이 우리 지역에 주어질 명제라면, 이제 '세계적 고민과 지역적 실천'이라는 사고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법조칼럼



전 진 우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

## 화해·평화를 회복하는 법

첫째, 원고는 전복양식장을 하는 피고에게 몇 년 전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런데 태풍이 몰려와 전복의 반이 죽었다. 피고는 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내년 여름이면 남은 전복을 키워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 판결의 결론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는 판결을 받아도 피고의 재산을 찾아 경매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의 전복양식장을 경매에 부쳐 버리면 피고는 더 이상 돈을 벌 길이 막히고 원고는 경매에서 받은 돈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 원고가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납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화해를 하면 분쟁은 일찍 종결되고 피고가 전복을 잘 키워서 돈을 갚게 되면 원고는 번거롭지 않게 돈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화해조항에 따라 돈을 갚지 않으면 화해조항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둘째, 원고는 A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와 거래를 했고 돈도 보냈다. 그런데 피고는 A에게 다른 일을 시키며 피고 이름을 쓰게 했을 뿐 원고와의 거래는 시키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가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고라면 거래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A는 잠적했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증거를 찾아 재판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어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판결이 나오면 한쪽은 전부 승소하고 다른 쪽은 전부 패소할 수밖에 없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만이다. 이런 경우에 판결을 바꿔 원고는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A를 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분담하기로 화해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분쟁을 일찍 끝내고 전부 패소할 위험을 덜 수 있다. 셋째, 건축업자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에 공사를 하기로 했다. 공사 중 피고가 몇 가지 공사를 더 해달라고 하면서 대금은 들어간 비용에 이익을 더해 적절히 주겠다고 했고 원고는 추가공사를 했다. 원고는 공사 후 추가공사대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고 피고는 1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따졌다. 원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한다. 판결을 하려면 공사에 들어간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 감정을 해야 한다. 감정을 하려면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원고가 일단 내야 한다. 원고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감정비를 전부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럴 때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화해를 하면 원고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양 당사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와 같이 화해가 유익한 상황들이 있기에 판사는 화해 방안을 고민해서 화해를 권한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될 수 없기에 판사는 법정에서 진지하게 설득하기도 하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만들어 보내기도 한다. 필자는 화해를 권하면서 앞서 본 화해의 유익과 함께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 바로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어 법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전에는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거래도 해 왔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분쟁이 발생해서 평화가 깨진 상태로, 때로는 매우 적대적인 상태가 되어 법원을 찾는다. 판결이 분쟁을 일단 끝내는 길은 될 수 있지만 평화를 회복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분쟁을 일찍 종결하게 되면 분쟁이 끝나는 것을 넘어서 평화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채무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나눠 갚고, 채권자는 이런 채무자를 믿고 다시 거래할 수도 있다. 일을 하다가 생긴 손해를 서로에게 지우려 하면 회사들은 손해를 분담하기로 하고 다시 거래할 수도 있다. 쥐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놓고 다투던 사람들은 일찍 소송을 끝내고 대화와 양보의 기어를 떠올리며 다시 거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화의 회복을 기대하며 필자는 화해를 권한다. 화해를 통해 법원이 분쟁을 끝내는 것을 넘어서 평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기고

## 대한민국의 든든한 조력자 투르크메니스탄



엘마스 라솔로브  
성공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과 기회를 가진 나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위치적 이점으로 인해 주변국들과 연계해 카스피해에서부터 흑해와 발트해까지 동서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하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중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최적의 경로가 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즉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해 유라시아 대륙과 경제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주장과도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송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의 양자 관계의 우선 순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LG상사, 삼성, 대우인터내셔널, 기아 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 제2의 수도 투르크멘바쉬 도시의 성공공장을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설립 현대화 사

업 프로젝트를 수주해 착공에 들어갔다. 또한,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될 가스 화학 단지는 최대 50억m3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연간 38만 6000t의 폴리에틸렌과 8만1000t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게 되며 34억 3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한국·투르크의 교역량은 2008년 기준 2254만 달러에서 2014년 1억9314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한민국 대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기계, 철강 및 금속제품, 건설용 기계, 정보통신기기이며 대한민국의 투르크메니스탄 수입 품목은 섬유 및 면사 제품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대중 교통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버스와 자동차들로 운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양국의 협력의 높은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슈하바트가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한-투르크 양국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과학적 분야의 전문가 교류와 학술회의 등을 통해 문화적 인도주의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투르크메니스탄 교육기관과 사회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으로 돈독한 관계발전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선진의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렇듯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과 올해 4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 국빈방문은 짧은 기간 동안 가진 두 번의 양국 정상들의 만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일깨우고 있다. 한국에게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적인 면에서나 유라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한국은 국가 기관 산업 발전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를 구체화할 다양한 차원의 양국 협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더 큰 대한민국의 밀그림임과 동시에 또 다른 형제국이 될 투르크메니스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社說

## ‘자동차 100만대 생산’ 꿈 기필코 이루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까지 조성’은 단순히 자동차 몇십만 대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 될 중요한 사업이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달려 있다. 광주가 경제적 소외,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그리고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1996년 아시아 자동차공장이 들어서면서 자동차 생산의 기반이 마련됐다. 뒤를 이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전국 최고의 노동생산성을 지난 공장으로 발전하는 등 광주의 자동차 산업 인프라는 어느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 광주 미래 먹거리 결정

광주의 자동차산업은 광주 전체 부가가치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따라서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도시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보안’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내년 2월로 다시 예타 내림 검토의 기미짐에 따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지을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 착수는 또 다시 1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은 광주 경제의 중추다. 2013년 기준으로 14만8천 명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광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3.6%다. 관련 매출 역시 11조9천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 매출의 40.6%를 차지한다. 사실상 자동차가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 중심에 연간 최대생산량 62만 대 수

준의 기아차 광주공장이 있다. 여기에 생산량 38만 대를 늘려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광주의 꿈이다.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놓은 유인 카드는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 임금(보통 임금 수준의 70~80%)을 받는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기업은 적정 임금을 따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연봉 3천만~4천만 원대의 중간수준 임금을 받는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구조다. 이 아이디어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얻었다고 한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낮은 임금에서 출발하더라도 차후에 결국 기존 공장의 임금 수준에 맞추려 들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할 새 공장은 반드시 기존 노사협상이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중앙정부 통 큰 지원 절실

어찌 됐든 그거야 차후의 일이고 우선 당장 광주의 입장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만큼 절실한 게 없다. 완성차 업체가 새로운 라인 증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장 부지의 매입과 인프라다. 또한 내년 2월로 다시 예타 내림 검토의 기미짐에 따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지을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 착수는 또 다시 1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은 광주 경제의 중추다. 2013년 기준으로 14만8천 명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광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3.6%다. 관련 매출 역시 11조9천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 매출의 40.6%를 차지한다. 사실상 자동차가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 중심에 연간 최대생산량 62만 대 수

## 無 等 鼓

인구 늘리기가 국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흥미로운 것은 농업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인구 문제는 왕이 직접 챙기는 중요한 사책이었다는 점이다. 농업에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한 것은 당연했다. 의료 수준이 낙후했던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드는 것은 예사였다. 이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다.

10섬을 지급했다. 쌀과 콩 10섬이면 지금은 400만원 안팎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당시의 쌀 10섬이면 다량(산골짜에 총중으로 된 콩 10섬)은 열 마지기(2000평·6611m)를 살 수 있었다. 명종이 쌀을 다산한 여인에게 지급했던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드는 것은 예사였다. 이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다.

### 출산장려금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명종 때, 강원도 원주에 사는 양인 사월이 아들 세쌍둥이를 낳았을 때, 경성도 양산 사는 천인 명지가 아들 네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여인 모두 기니조차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 당시 세쌍둥이 이상 출산하면 조정이 쌀과 콩 10섬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 조정 창고 비축미가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호소는 할 수 없이 여인들에게 쌀 한 가마를 쥐 위로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어린 왕은 “전래대로 쌀과 콩을 지불한다고 해서 국고가 당장 바닥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며

전국 지자체들이 6년여 전부터 앞다퉀 출산장려금을 내놔왔다. 순창군이 다섯째 출산부터는 1520만원을 주는 것을 비롯해 다섯째나 여섯째 아이 출산부터는 2000만원을 주는 곳도 생겼다. 문제는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슬그머니 없앤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는 셋째 아이에 지급했던 1000만원을 없앴으며, 인천은 아예 내년부턴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한다. 지방정부라도 한 한 가마를 쥐 위로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어린 왕은 “전래대로 쌀과 콩을 지불한다고 해서 국고가 당장 바닥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며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